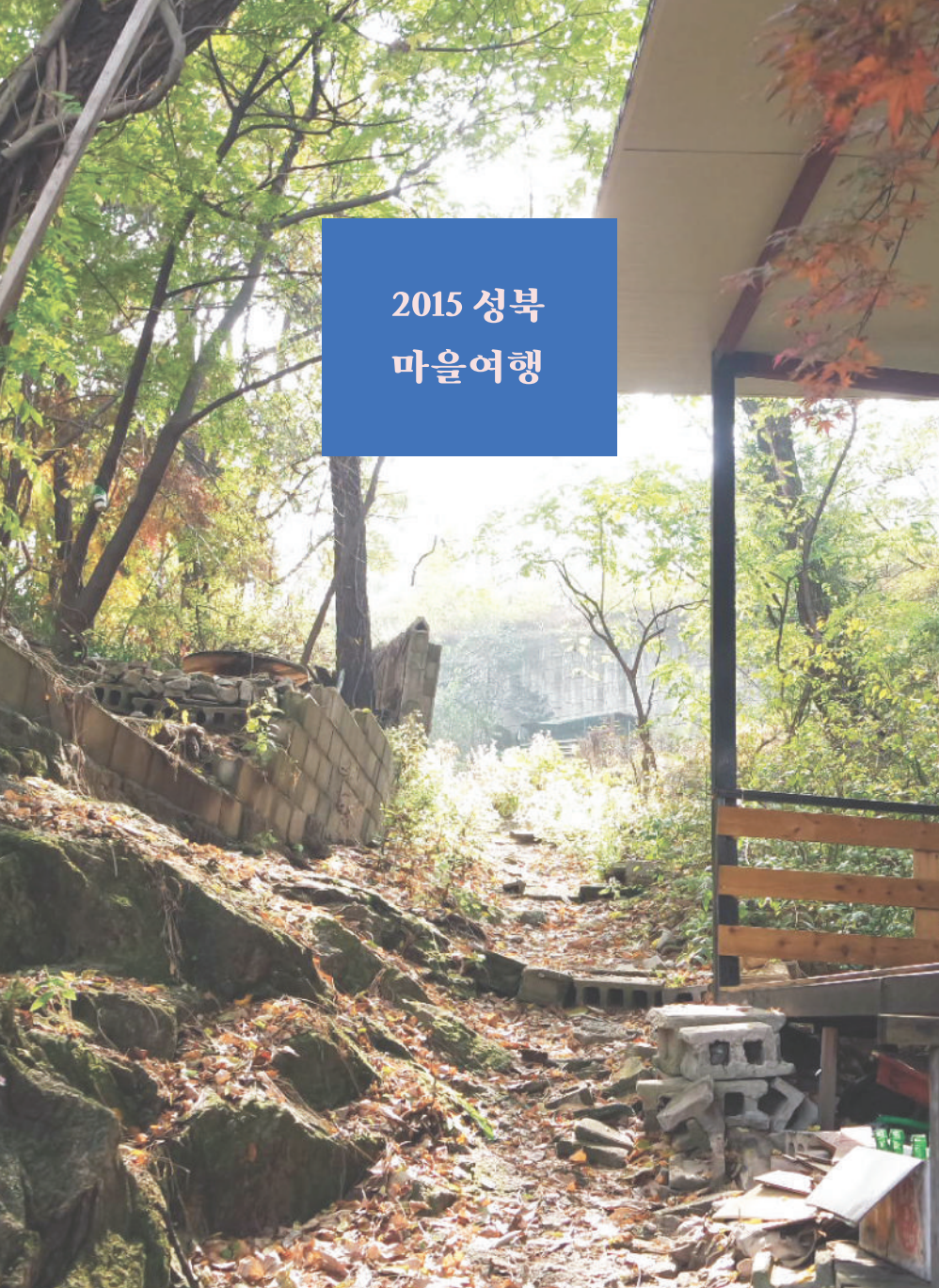


2015 성북
마을여행

마을에서 함께하는 놀이를 꿈꾸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주목받고 앞으로도 화두가 될 마을 만들기와 마을공동체 이야기. 마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싹을 틔운 마을공동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자연스레 마을공동체를 경험해보고픈 이들도 점차 많아지게 되었고 마을 탐방도 각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마을공동체 탐방뿐만이 아니라, 지역 문화자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면서 '마을여행'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성북의 각 마을에서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순한 탐방 프로그램들을 마을여행 콘텐츠로서 개발하고자 성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북동천, 협동조합 성북신나,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 협동조합, 아트버스킹과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공동으로 성북마을여행기획단을 꾸리고 활동하게 되었다.

마을을 여행한다는 것. 그것은 마을을 경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놀이가 아닐까 기획단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마을여행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고민하고, 활동했다. 아직 '마을을 여행한다는 것은 과연 마을에 필요할까?' 라는 물음에 답하기는 어렵지만, 기획단의 올해 활동들이 지역에 대한 수많은 문제와 이슈를 더 많은 이들과 같이 고심하고, 대안과 답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북마을여행기획단

목차

여는 말 3

성북마을여행 5
성북마을여행 기획단 6
활동 개요 7
성북동 마을여행 8
정릉동 마을여행 14
2015 성북마을여행 만족도 조사 20

성북마을여행 연구모임 22
활동 목표와 과제 23
마을여행의 정의 수립 24
마을여행의 역할 탐색 26
마을여행은 마을에서 꼭 필요한가 27
마을여행은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8

역량강화 프로그램 29
아껴둔 마을, '성북동 한옥'을 알아가는 발돋움 수업 30
대전워크숍, '대흥동 도심여행' 34
새로운 마을여행의 시도, 로맨틱로드 38

성북마을여행 간담회 41
마을여행, 과연 마을과 주민에게 필요한가?

후기 48

성북마을여행

성북마을여행 기획단

도토리문화학교
주민들이 즐겁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콘텐츠를 만드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 협동조합 * 이하 성아들
성북동 역사문화 해설과 자연생태 보존을 위한 체험활동을 하는 마을기업입니다.

성북동천
마을잡지를 발간하고 마을탐방을 진행하는 성북동 주민과 단체들의 연대모임입니다.

아트버스킹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기획사입니다.

협동조합 성북신나
정릉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문화기획 협동조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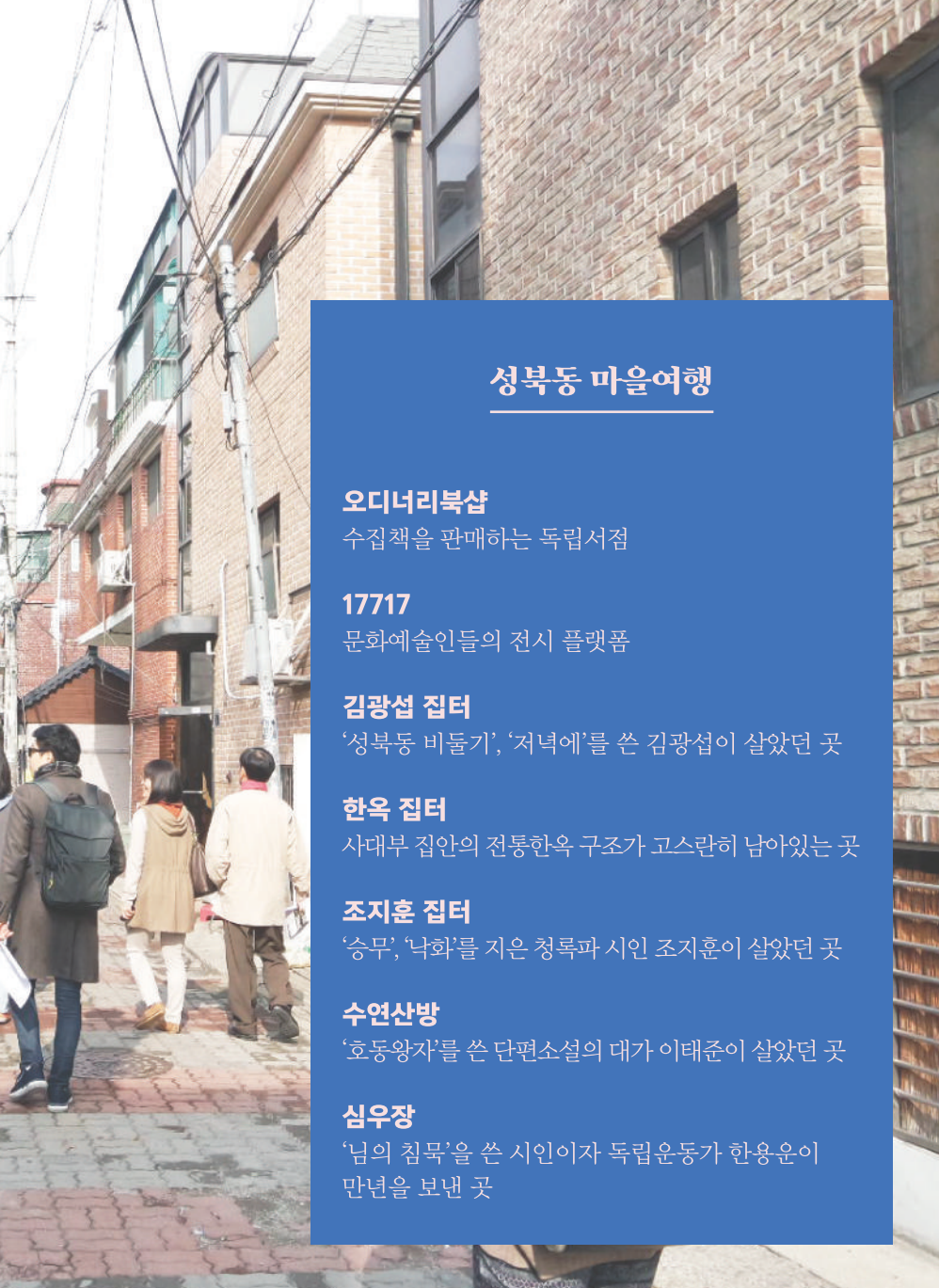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적 가치를 되살려 사람이 행복한 마을을 꿈꿉니다.

활동 개요

개별적으로 마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성북 지역의 단체들이 성북마을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성북마을여행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각 단체의 중심 활동 지역에 따라 성북동과 정릉동으로 여행 구역을 나누고, 기존에 알고 있던 자원과 운영하고 있던 코스를 서로 연계하여 새로운 마을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마을	진행	일시
성북동 마을여행	성북동천 성아들	2015. 11. 11. (수) 11:00~14:00 2015. 11. 22. (일) 15:30~19:00
정릉동 마을여행	협동조합 성북신나 도토리문화학교	2015. 11. 14. (토) 15:00~19:00 2015. 11. 18. (수) 11:00~14:00
주최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주관** : 성북마을여행기획단 **성북마을여행 사무국** : 아트버스킹		



성북동 마을여행

오디너리북샵
수집책을 판매하는 독립서점

17717
문화예술인들의 전시 플랫폼

김광섭 집터
'성북동 비둘기', '저녁에'를 쓴 김광섭이 살았던 곳

한옥 집터
사대부 집안의 전통한옥 구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조지훈 집터
'승무', '낙화'를 지은 청록파 시인 조지훈이 살았던 곳

수연산방
'호동왕자'를 쓴 단편소설의 대가 이태준이 살았던 곳

심우장
'님의 침묵'을 쓴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한용운이 만년을 보낸 곳

30

ORDINARY
BOOKSHOP
ORDINARY
BOOKSHOP

“한양도성을 머리맡에 두고 잠들 수 있는 곳”

◀ 성북구 성북동 북정마을

정릉동 마을여행

정릉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자 조선의 첫 번째 왕비인 신덕왕후의 능

어수정
건너편 돈암동에서 물을 길어다 먹을 정도로, 물맛이 좋기로 소문난 마을의 공동우물

북악당
대한역리협회에 속해 있는 맹인들이 독경을 하는 당

쌈지정원 꽃길
주민들이 '교수단지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문 앞에 작은 꽃 화분을 걸어 놓아 형성된 길로, 지금은 주민들의 축제 길

보국사
마을 내에 있는 사찰로, 마을

성심교회
방주 형태에, 최대 약 6명 정
한 칸으로 구성된 서울에서

정릉아리랑시장
전통시장이자 정릉으로 가는
작아졌지만, 마을주민들의 다
이어져가고 있는 시장

청소년 휴카페
간단한 음료와 편안한 모임
어우르는 마을 아지트

공간 신나네
지역을 신나게 하는 작은회
사무실이자 조합원 공간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기와집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예배당
서 가장 작은 교회

가는 유일한 입구. 규모가
의 다양한 활동이 꾸준하게

모임 공간이자, 다양한 세대가

회사 '협동조합 성북신나'의

“작은 동네 같지만 가는 곳마다
비슷한 곳이 하나도 없어서
똑같은 동네 같지가 않아요.”

성북마을여행

2015 성북마을여행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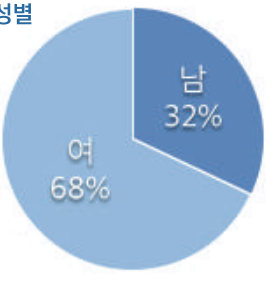
기간 : 2015. 11. 11 ~ 2015. 11. 22, 총 4차

대상 : 2015 성북마을여행 참여자 38명 (성북동 10명, 정릉동 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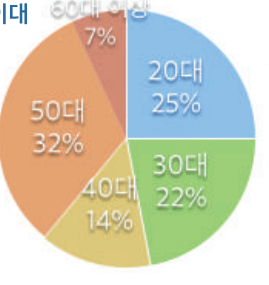
* 성북동은 한 회당 참여자 정원을 5명으로 제한, 정릉동은 15명으로 제한

참여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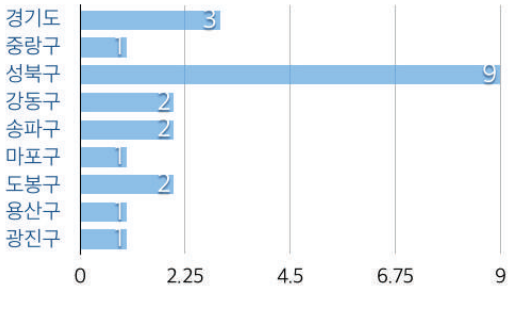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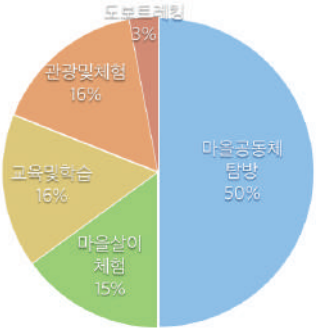


나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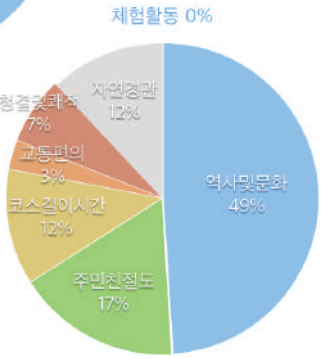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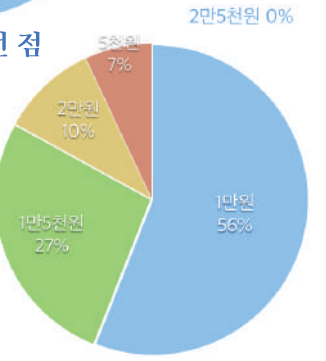




참여 목적



인상깊었던 점



참가비 적정 금액

성북마을여행 연구모임

활동 목표와 과제

참여 단체

성북동천, 협동조합 성북신나, 아트버스킹,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활동 목표

성북 지역에서 마을여행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조직들과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마을여행을 필요로 하는지 고민하고, 그 필요성을 확인한다.

활동 과제

1. 마을여행의 정의 수립
2. 마을여행의 역할 탐색
3. 마을여행은 마을에서 꼭 필요한가
4. 마을여행은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마을여행의 정의 수립

활동과제 1.

“마을여행은 마을에 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다.”
김기민(성북동천)

“마을여행은 마을에서 하는 놀이다.”
황려진(협동조합 성북신나)

“마을여행은 마을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레저 콘텐츠다.”
김경서(아트버스킹)

“마을여행은 마을을 경험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박선영(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바라보는 재미, 이만큼 어울리는 의미, 저만큼 그 농밀한 사이”
이순애(성아들)

“마을을 경험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놀이다”

마을여행의 역할 탐색

활동과제 2.

마을여행은 코스 개발, 탐방진행, 여행 코스 주변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에 소통과 협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마을여행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관계 형성 및 공동체성 증진, 주민 조직화를 촉진할 수 있다.

마을여행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외부인 및 외부 자본 유입이 가속함에 따라 과잉 개발 및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 이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주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선제 또는 사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동체 활동이 확대될 수 있다.*

마을여행은 마을에서 꼭 필요한가

활동과제 3.

재미있고 즐거우며 참신하고 완성도 있는 도시 여행 프로그램은 여행이란 꼭 큰 비용을 들여 먼 곳으로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자연스레 여행 참가자들은 마을여행의 매력과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마을여행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관심 또는 여행상품 소비자로서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고 있어 앞으로 마을여행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마을여행의 사업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마을과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며, 때로는 상반되는 욕구들이 공존하며 상충하기도 한다. 가령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안정된 주거환경을 희망하지만 동시에 잘 정비되어 편리한 환경을 바라기도 한다. 마을이 갖는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려는 주민들도 있지만, 지역 개발에 따르는 상업적·자본적·경제적 이익에 주목하여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마을여행에 대해 갖는 인식도 다르며,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마을여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비가시적인 것들이거나, 당장 보상을 기대하기 힘든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이기 때문에, 마을여행 사업의 지속을 적극적으로 성원하는 주민은 발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사업 개발과 동시에 마을여행 사업과 주민을 연결하는 작업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마을여행은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활동과제 4.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 토지·건물 등 부동산 가격 또는 임대료 상승 등 외부 방문객, 이주자, 외부 자본 유입에 따른 지역 상권 및 부동산 이용 현황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원주민과 상인들이 지역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을여행 사업 초기에는 거주·생활하는 지역에 대한 지역 안팎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마을여행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조직하고 공동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고 보다 심화함에 따라 지역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고 이에 따라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가속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주민간 결속력이 약화되고 나아가 공동체 해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아껴둔 마을, '성북동 한옥'을 알아가는 발돋움 수업

성아들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목표

문화유산해설사의 경력과 전문성 활용을 위한 맞춤형 해설능력 지원
잊혀가는 한옥에 대한 고찰과 성북동 한옥만의 독창성과 가치의 발견

기본 개요

대 상 자 : 성북마을여행기획단 참여단체 회원 및 관심 있는 주민
교육기간 : 2015년 11월 6일~11월 20일 (총 4회)
수강인원 : 47명
프로그램 : 한옥 이해, 성북동 한옥 탐방, 한옥 투어 콘텐츠 개발

교육 평가

왜 성북동 한옥인가?

- 역사문화지구로서 성북동 브랜드와 그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템 개발
- 아껴둔 성북동 한옥의 실태와 매력을 재발견하여 지역관계망 확장
- 공간 속에서 장년층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오는 한옥 체험

어떻게 접근할까?

- 지금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호흡과 숨결을 맞춰 프로그램 구성
- 성북동의 고급 이미지를 살려 주력 고객층 확보를 위한 홍보
- 혼자 와서는 전혀 몰랐을 이야기를 발굴하여 들려주는 코스 기획
- 그리움을 자극하는 콘셉트로 여고 동창생, 이주자 등 중년 팬 확충

상품 가치 평가

- 핵심해설 프로그램으로 하기에는 역량부족(한옥 가정집 섭외 등)
- 하지만 연 2회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 시, 가치와 홍보 효과 상승 기대

상품 콘셉트

- 한옥의 건축이나 역사 등 전문성보다 스토리텔링과 해설 기법 개발에 집중

과제

- 한옥을 보존한 가정집 주민을 섭외하여 한옥 완결판 체험 코스 개발
- 주민들이 한옥 여행사업을 지지하고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차별화된 한옥 여행 프로그램 마련*

대전워크숍,
대흥동 도심여행

성북마을여행기획단 역량강화 프로그램

대상 : 성북마을여행기획단 · 연구모임
일시 : 11/27(금) - 11/28(토), 1박 2일
장소 : 대전시 중구 대흥동 일대
진행 : 성북마을여행기획단 / 아트버스킹
목적 : 공정여행에 직접 참여하여 마을여행에 접목할 수 있는 장점과 보완해야 할 한계점 등을 파악고자 한다.
프로그램 : 1일 차, 공감만세에서 진행하는 대흥동 도심여행 참여
2일 차, 자유 여행

공정여행과 마을여행은 수익구조가 '주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공감만세 프로그램 중 대흥동 공정여행 프로그램이 있어, 성북마을여행과 비교해보고자 신청하여 참여하였다.

"대전은 원래 '큰 밭'이었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계획으로 도시가 건설되었다. 일본이 곡식을 수탈해갈 때 대전역에서 환승하여 가도록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가락국수가 대전에서 유명한 음식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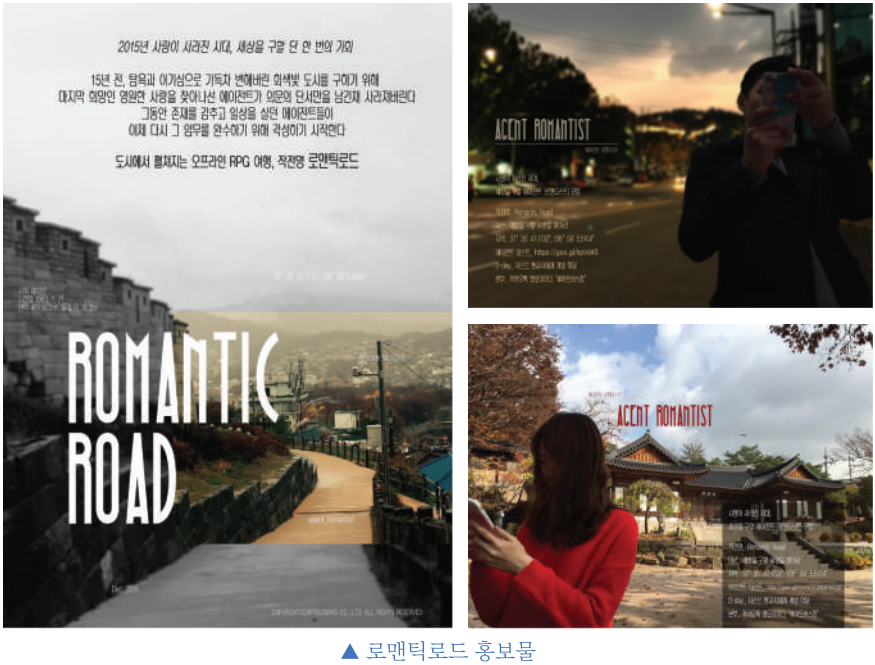
대흥동 도심여행 후기

각 장소를 대흥동 공정여행 코스에 넣은 이유, 연계성,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략하게 이루어져 전체 여행의 이해도가 떨어졌고, 대흥동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상세하게 알기는 어려워 아쉬웠다.*

새로운 마을여행의 시도, 로맨틱로드

아트버스킹 역량강화 프로그램

아트버스킹은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회의가 있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행동 유도와 게임의 보상과 경쟁 요소를 활용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쉬운 예로는 예능프로그램 런닝맨과 지하철 계단에 설치된 피아노 계단 등이 있다.



▲ 로맨틱로드 홍보물

성북마을여행기획단에 속해 마을여행 콘텐츠에 대해 연구하던 중 기존에 가이드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마을여행 콘텐츠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해보고자 했다.
이 프로그램을 실험해봄으로써 마을여행과 게이미피케이션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시장성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성북동의 명소, 지역 상점과 같은 지역자원과 성북골목극장의 초단편영화들을 활용했고, 20-30대 남녀가 혼성으로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RPG 콘텐츠로 기획하여 12월 5일, 9일, 12일 총 3회, 제한시간은 120분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몰입도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참가자를 요원(에이전트 로맨티스트)이라 지칭하며, '사랑'이라는 것을 부활시키기 위한 미션과 그에 맞는 영상을 연결했다. 영상은 2015년 10월 진행했던 성북골목극장에서 '사랑'을 주제로 심우장, 길상사 등 성북구 내에서 촬영한 3편의 초단편영화를 활용하였다. 연결점은 AR마커를 이용하여 심우장, 길상사 내 상징물을 촬영할 때, 기기 내 어플로 영상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기기(아이폰)와 메모장(미션노트)으로 전체적인 힌트를 주고, 최종 리워드는 크립텍스를 이용해 전달하였으며,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해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마을여행과 게이미피케이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마을여행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키우는데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유저 리서치 기법의 하나인 섀도잉을 통해 참여자들의 현장 참여도와 몰입도를 파악했고, 이후 대면인터뷰를 통해 실행 중 개선 사항과 좋았던 점에 대해 파악했다. 활동 영역이 넓어 제한시간 내 마치기 힘들었다는 의견과 AR마커의 구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성북동 골목과 역사문화자원을 둘러볼 수 있고, 지역 상점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호평이 이어졌다.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다시 진행할 때 난이도와 영역 조절을 통해 참여자들의 피로도는 낮추고, 지역 상점과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정보를 넣어 성북동에 대해 많은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마을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성북마을여행 간담회

마을여행,
과연 마을과 주민에게 필요한가?

2015년 성북마을여행 연구모임에서는 '마을여행, 과연 마을과 주민에게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1차 간담회 때는 마을여행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2차 간담회 때는 마포사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발표회에서는 마을여행기획단의 활동과 하반기에 운영했던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여행의 정의와 마을여행의 필요성, 이후 마을여행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2015년 8월부터 진행했던 마을여행 연구 모임과 워크숍을 통해 마을여행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온 활동들을 돌아보고 각자의 소감을 나누며 마을여행의 비전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마을여행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속성이다.
지속하려면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화분 몇 개 놓고 보기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생활에 있어 느끼는 불편함과 같은 문제들까지
파악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마을여행과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마을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참여도 높아지고, 스스로 대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1차 간담회 중에서, 김철우(성북동천)

2차 간담회 때 마포지역 사례 공유에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관련한 강의를 들으며 마을여행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이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을여행이 향후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마을여행 활동의 방향을 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런 내쫓김 현상(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사례처럼, 우리가 시작한 작은 활동이 의도치 않게 마을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성을 증진시키는 데 마을여행의 역할을 기대했던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여행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성북마을여행기획단이 최초에 합의했던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놀이'로서 마을여행은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각주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낮은 임대료를 찾아 모여든 예술인 또는 활동가들이 지역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중상류층의 자본가들이 유입되어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던 예술가 또는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현상을 말한다.

3차 발표회 때는 '2015 성북마을여행'을 평가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는데, 성북마을여행을 구성하는 다양한 단위들을 '주민과 마을공동체', '참여자', '지역활동가', '중간지원조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기대하는 마을여행의 상과 역할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자긍심을 갖고, 그 자긍심을 참여자들에게 나누며, 마을여행을 진행하는 단체는 협업을 통해 성장하고, 그런 장을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공통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이 마을여행에 대해 만족감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민이 마을여행의 필요성을 인식하려면 마을여행을 통해 마을주민의 욕구가 실현되는 과정과 마을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경험해야 한다. 마을여행의 긍정적인 역할로 기대되는 것은 마을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마을여행에 참여하고, 나아가 스스로 조직함으로써 마을공동체가 자체적으로 활력 있게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마을공동체가 먼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여행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마을의 특성과 상황을 잘 고려하여 결속력이 약하거나 아직 자체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해나갈 만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동체들이 마을여행을 통해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마을주민뿐 아니라 마을여행 참가자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여가시간을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를 기대하며

찾아오는데 마을여행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공급자 위치에 있는 마을, 주민과 수요자 위치에 있는 참가자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의 입장만 고려한다면 마을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기 전에 마을여행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요자, 소비자, 참가자로서 방문객들의 욕구 충족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마을이 원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소통하는 여행이 아닌, 동물원 우리 안의 원숭이를 보듯 그저 구경만하다 가는 여행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행을 주민이 스스로 나서 추진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반론도 있었다. '마을여행이 주민, 공동체 입장에서 필요한가?'의 질문에 주민 스스로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역에서 마을여행을 진행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마을여행 참여 주체들은 이 활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통 인식을 공유해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 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손님을 잘 모시고 대접하는 데 공을 들이다 정작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손님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면 손님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마을여행을 추진함에 있어 주객의 구분은 명확해야 한다. 손님을 맞는 주인이 자신이 왜 손님을 맞이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때 손님에 대한 배려와 손님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여행은 마을주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그들의 의견과 생각에 초점을 맞출 때 자발성에 기초하여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참가자를 제외한 마을여행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는 것이 마을여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의 지역성이 잘 드러나면서 주민과 참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을여행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현재 마을여행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집이 없기에 이를 제작하는 것과 참여자들이 각자의 기호와 관심사에 기초하여 적합한 여행코스를 선택하기 쉽도록 카테고리, 주제별로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마을여행 협력 단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공동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다채로운 마을의 모습들을 대내외적으로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을여행의 참가자 타겟팅을 좀 더 세분화하여 이에 부합하는 마을을 소개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 2016년 마을여행 활동 내용으로 여행객 숙박시설을 알아보고 1박2일이 가능한 연수형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초등학생 수업으로 진행하는 '우리고장 알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 그리고 마을의 스토리를 더 발굴하고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마을여행을 기획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후기

마을, 그 안에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주민이 있습니다. 마을을 만나고 그 안에서 주민을 만나는 즐거운 동행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한 동행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
강희정(도토리문화학교)

"2014 성북동 마을탐방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성북 안에서 공동으로 마을여행을 진행하게 되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웠고 또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성북마을여행이 성북에 거주·생활하는 주민들, 성북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삶의 터전으로서 성북이 갖는 가치와 매력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기민(성북동천)

"사람이 있고, 삶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마을여행,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마음 따뜻했던 마을여행,
2016년에도 함께해요."
박선영(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누구든지 신나는 성북, 구석구석 재미난 성북,
야호야호 놀라운 성북,
너랑 우리 손잡은 성북마을여행에 내 사랑 곱빼기로 담아놨으니
성북 사진 곁들인 에세이 풍 안내서 한 권 만들어도 되겠지?
이순애(성아들)

“마을여행은 마을을 자랑하고 싶은 주민들의 마음과 그 자랑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의 마음이 만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여행이 아닌 두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마을여행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최송이(아트버스킹)

“마을여행의 가치와 가능성, 그리고 한계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더 나아진 모습의 마을여행, 기대합니다.”
황려진(협동조합 성북신나)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2015년 성북마을여행 활동보고서
발간일 2015. 12. 28.
발간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편집디자인 협동조합 성북신나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주소 (0280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5길 29 3층
홈페이지 www.sbnet.or.kr
이메일 sbcenter9501@sbnet.or.kr
전화 02-927-9501
팩스 02-927-9502

주최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후원** 성북구청 · 서울시